관음상에 십자가 장식…"신앙 존중 표현"

日 정토종 사찰 코쇼인, 독특한 불상 화제

주지스님, 2015년부터 빈곤층 지원
무연고 사망자 묘소에 관음상 조성
그리스도교와 합동 위령재 봉행도

박영빈 객원기자

도쿄의 일용직 노동자의 거리로 불리는 산야(山谷)지구. 이곳에 소재한 정토종 사찰 코쇼인(光照院)에는 독특한 불상이 봉안돼 있다. 불상의 영락장식에 십자가가 달린 관세음보살상. 지난 9월 5일, 일본의 '도쿄신문'은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만남으로 불리는 이 불상에 얽힌 이야기를 특별 보도했다.

도쿄시 다이토구와 아라카와구 사이에 걸친 산야 지구는 2차 대전 이후 집을 잃은 피난민들이 세운 텐트촌에서 시작됐다. 이후 싼 땅값에 간이 숙박시설들이 생기고 잔후복구를 위한 노동력이 대거로 필요해진 시대적 상황에서 이곳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거리가 됐다.

도쿄신문은 "도쿄 올림픽 전해인 1963년에는 일본 전국에서 모인 일용직 노동자 1만 5천여명 가량이 산야지구의 숙소에서 생활했으나, 버블경제가 붕괴한 후 현재 거주하는 이는 3천명 가량으로 산야지구라는 이름은 공식적으로 66년도에 폐지됐으나 여전히 관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싼 값의 간이 숙박소가 밀집해 일용직 노동자 외에도 빈곤이나 장애 등 다양한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거주하는 산야지구는 친지나 가족과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채 숨을 거둔 이들도 많다.

2015년부터 산야지구에서 독거노인, 혹은 빈곤계층을 지원하는 활동을 이어온 그리스도교계 단체가 코쇼인과 상의해 코쇼인 소유의 묘지에 산야지구 무연고 사망자들의 묘를 세우게 됐다. 코쇼인의 주지 요시미즈 가쿠겐 스님은 "묘를 세우던 당시, 종교나 종파에 관계없이, 모두 손을 모아 추도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신도들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 조성된 것이 바로 십자가 한 관세음보살상"이라고 소개했다. 가쿠겐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와 하느님의 사랑이 조화되도록, 보리수 열매와 십자가를 교차하여 꿰었다"고 설명하며 "부처님의 자비는 다른 신앙의 중생일지라도 결코 놓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종교를 떠나 모두에게 자비광명이 스며들길 바라며 조성된 관세음 보살상.
사진출처=도쿄신문

관음상의 정식 명칭은 '아사쿠사 산야 광윤(山谷光潤) 관음보살'이다. 가쿠겐 스님은 "일부러 명칭에 지금은 공식적으로 사라진 이름인 '산야'를 넣었다. 이름이 사라진 곳에서 연고 없이 스러진 모든 영가들에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이 젖어들기 바라는 뜻이다"고 전했다.

관음상의 하단에는 공동납골묘인 '모두의 무덤'을 조성했다. 이 납골묘엔 산야지구에서 무연고로 사망한 이들은 물론, 제사나 묘를 이어줄 가족이나 친지가 없어 곤란해 하는 분들의 유골도 함께 안치하고 있다.

산야지구에서 노동자들의 쉼터를 운영하며 관음상을 가장 자주 들리는 나카무라 노리코 수녀는 "이 무덤이 세워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이 죽어도 기도해 주는 장소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종교를 떠나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라고 이야기했다. 실제 가쿠겐 스님과 노리코 수녀는 오랫동안 불교와 그리스도교 합동 위령재를 봉행해 왔다.

가쿠겐 스님은 "각자에게 소중한 신앙을 서로 존중하고 소중히 한다"며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이 도우며 걸어온 이곳이 산야의 역사"라고 말했다.

美, 달라이라마 도서관 완공

달라이라마 직속 사원인
남갤사원 미국분원 건립


이타카 남갤사원에 건립된 달라이라마 도서관&교육센터.
사진출처=이타카 남갤사원 페이스북

미국 뉴욕주 이타카시에 소재한 티베트 불교사찰인 '남갤사원'은 오랜 사찰의 숙원사업이었던 '달라이라마 도서관&교육센터'를 완공, 낙성식을 봉행했다. 9월 7일, 미국의 '이타카 저널'은 남갤사원의 발표를 인용해 도서관의 완공을 전했다.

남갤사원은 티베트어로 '완전한 승리'라는 뜻으로 1564년, 2대 달라이라마가 건립한 이래 지금까지 달라이라마 직속 사찰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타카 남갤사원은 이타카시에 자리 잡은 티베트 난민 공동체의 신행활동을 위해 남갤사원에서 초빙한 스님들을 계기로 1992년 남갤사원의 공식 분원으로 건립됐다. 전 세계에 소재한 5곳의 남갤사원 분원 중 유일하게 서구권에 있는 사찰이기도 하다.

달라이라마 도서관&교육센터는 이타카 남갤사원의 숙원사업으로 이곳은 역대 달라이라마들의 저작물을 비롯해, 현 14대 달라이라마가 평생에 진행해 온 40,000시간 분량의 법문, 연설, 대중 강연 등의 어록을 보관하고 정리하는 장소로 계획됐다. 뿐만아니라 티베트 난민들이 티베트에서 망명 시에 가져온 4,000권 가량의 고대 필사본과 불교경론들, 인도와 티베트 불교 역사 전반에 걸친 중요한 유물들도 보존, 전시된다.

이타카 남갤사원측은 낙성식에서 "사랑과 친절, 자비와 용서 등 인간의 내적인 가치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달라이라마의 메시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과 고통이 가득한 이 시기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달라이라마는 모든 인간의 따뜻한 마음과 연민을 발전시키는 것이 이 세상의 고통을 완화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데 필수적이라고 굳게 믿고있다"며 시설의 목표를 전했다.

9일과 10일에는 8개 종교에서 온 20명의 종교지도자들이 각자의 종교에서 말하는 자비와 평화에 대한 토론회도 진행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불자 최종학력, 세계 평균보다 높다

美 여론조사업체 결과 발표
불교, 현대 교육과 접목 가능


불교교육론은 현대 교육에 접목가능하다는 연구가 나왔다.(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사진출처=픽사베이

9월 11일, 남아시아 온라인 뉴스 '뉴스인아시아'는 불교도들의 최종학력이 세계 평균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했다.

미국 굴지의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불교도의 최종학력이 세계 평균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교와 학습이 초기 불교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했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모든 집단의 세계 교육 기간 7.7년에 비해 불교도들의 평균 교육 기간은 7.9년이었다. 고등 교육 과정을 밟은 불교도는 12%로, 이를 비교하면 전 세계 성인의 14%에 해당한다. 25세 이상의 불교도 90%가 기초 교육을 받은 반면 전 세계 평균은 81%에 불과했다.

미국과 영국의 불교도들은 다른 종교 집단들 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미국 불교도의 평균 교육기간은 13.4년이었으며 절반 이상(53%)이 고등 교육 자격(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학위)을 취득했다. 비불교도는 평균 12.9년의 교육기간 및 고등 교육 자격 취득률은 39%에 불과했다. 영국 불교도들은 타 종교에 비해 고등 교육을 받은 인원이 20% 높았다.

전세계 불교도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 그룹 A(중국, 네팔, 인도, 방글라데시,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는 10명중 1명이 고등 교육을 받았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1.2명이 고등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몽골 등의 국가에서는 고등 교육 자격 취득자가 그룹 A보다 훨씬 많았으며 특히 한국은 24%, 뉴질랜드는 44%가 고등 교육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일본과 싱가포르에서는 불교도의 3분의 1이 학위를 취득했다.

불교도의 최종 학력자 비율이 높은 까닭은 불교의 교육 접근법에 있다고 보고됐다. 불교의 교육 접근법은 현대의 교육 접근법과 유사했다. 불교 사상에 따르면 교육은 세속적이어야 하고 교리적이지 않아야하며 질문하고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이는 이상적인 현대 교육과 동일하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교육이 사회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을 강조했고 자신의 삶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여겼다. 부처님은 그의 아들 라훌라에게 자신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것들을 배우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또한 불교에서 강조하는 일체중생에 대한 자비심,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음챙김과 명상 역시 개개인의 주의력을 향상시키고, 감정조절을 가능하게 하여 대인관계 개선과 공격성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연구됐다. 연구팀은 "이러한 통찰력을 현대교육에 통합하면 스트레스 감소, 윤리적 가치 및 책임 있는 시민의식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에 참여한 인도학자 마하부브 만달은 "불교적 교육법은 불교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보편교육의 가장 훌륭한 예"라며 "불교특유의 종교색을 탈피할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말레이 백년고찰, 패소로 존폐 위기

시멘트 업체와 법정 싸움
상소법원, 업체 손 들어줘


석회암 동굴에 지어진 백년고찰 내부.
사진 출처=더바이브닷컴

지난 9월 9일 말레이시아의 영어 신문 '뉴 스트레이츠 타임즈'는 말레이시아 페라크에 위치한 백년고찰의 법정 싸움과 존폐 위기 소식을 전했다.

말레이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주인 페라크는 주석, 석회암 등 풍부한 지하자원과 아름다운 자연, 왕궁 건축물로 유명한 도시이다. 구웅 칸탄 기슭을 따라 조성된 석회동굴엔 백년고찰이 자리 잡고 있었으나 말레이시아 시멘트 제조업체 'APMC(Associated Pan Malaysia Cement)'가 사찰에 무단 점유 퇴거 소송을 걸면서 사찰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

APMC는 지난해 1월 페락주 훌루킨타 4649번지에 모든 무단점유자의 퇴거를 위해 이포 고등법원에 명령을 요청한 후 항소에서 승소했다.

APMC 관계자는 "석회암 채석을 위해 146.4헥타르의 토지를 주에서 임대했지만 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으며 사찰측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토지 매매 권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원 관계자는 "우리는 100년 이상 그 지역을 사용하고 있었다"며 법원에 이의 제기한 상태이다.

백년고찰은 지난 해 1월부터 퇴거를 반대해 왔으며 같은 해 10월 법원은 APMC의 신청을 기각했다. 1심 재판을 맡은 부핀다르 싱 법무장관은 "사원이 해당 지역에 100년 이상 거주하며 점유를 주장했다. 사원은 점유를 통해 무단점유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으며 퇴거에 대해 강력하 반론을 제기했다. APMC와 주 당국의 묵인으로 구웅 칸탄의 점유와 사용권에 대한 3가지 쟁점이 있다"고 하며 사원의 손을 들어 주었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김민재 객원기자

